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2.30원 오른 1,067.5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美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직전영업일 대비 2.30원 오른 1,067.5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오전 중 1,064.70원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美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를 앞둔 관망세로 1,065원대에
서 변동폭이 미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미 고용지표 발표 후 임금상승률 부진에 CPI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제수요에 하단은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서는 CPI결과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
일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자들의 숏커버 및 주식 역송금 수요에 상승폭을 키워 1,067.5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41원 오른 999.58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4.70	1067.90	1063.80	1067.50	1065.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0.65	1002.57	994.50	1001.40	
금일 전망	美 킬러슨 국무장관 해임에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되며 1,060원대에서 레인지 장세 예상				

금일 환율은 1,060원대에서 레인지 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0.30원 내린(스왑포인트 고려) 1,066.3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지난 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렉스 킬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 등 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달러화가 약세흐름을 보였다. 금일 서
울환 시장에서도 달러 약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오프 심리 되살아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주
식 순매도 흐름 이어갈 시 환율 하락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장마감 후 발표된 미 CPI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대
비 +2.2%수준으로 어느정도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였으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롱플레이 다
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 환율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2.50 ~ 107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817.8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0원 ↓

■ 美 다우지수 : 25007.03, -171.58p(-0.6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7.6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91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